

‘예술로, 모두의 삶이 빛나는 전주!’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통해 운영 성과 · 향후 계획 발표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백 대표이사는 취임 후 지역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비롯한 비대면 환경 및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한 정책사업의 개발과 운영시스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예술로, 모두의 삶이 빛나는 전주! 라는 새로운 비전과 예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문화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4대 가치와 4대 목표 그리고 16개 과제, 28개 정책 사업 중 핵심사업 위주로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 정신을 요구하는 사업지원에서 시상금 형태로 바꿨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얻게 된 지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을 예술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거대담론으로 이끌어 낸 ‘그린리 네스스 프로젝트’ 추진은 예술가와 시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탄소중립을 예술 창작과 연결한 ‘탄소 예술 프로젝트’ 기획 역시 지역예술가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장을 마련, 예술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 팔복예술대학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별도 개설해 운영하게 됐다. 또 디지털 전도판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에 관한 발전방안과 사업 개발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후원은 백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으로 재단의 재정자립도와 예술가들의 독립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재정확보라는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다. 취임 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 후원문화 조성회의 등을 통해 지역의 예술후원의 기초를 다져, 지난 6월 문화예술후원회인 '이랩프렌즈'를 발족시켰다.

팔복예술공장의 기능을 대폭 확장했다. 팔복예술대학 운영과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만 운영되던 A동을 기획진 개최와 지역예술가들의 발표공간으로의 확장을 꾀했으며, B동인 예술교육진흥공간은 온·오프라인 예술교육 외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역동적

로 추진하게 했다. 재단의 내부 혁신을 통한 효율경영을 위해 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직원 인터뷰와 업무분석,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적재적소에 직원 배치와 직원 8명을 승진시키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직원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과 단체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직원복지에도 힘썼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다각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통해 수요경인과 성과결과를 토대로 예술가와 시민 모두에게 만족되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속도감 있는 안정적 추진과 사업의 지향성과 가치에 주목해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네 꿈을 펼쳐라’

전북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비대면 개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팀(회장 김승곤)이 주최한 '제19회 전라북도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지난 17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경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댄스, 그룹사운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연에 참가한 팀들은 무대 위에 올라 기량을 발휘했다. 댄스부문 대상은 심수민 외 6명으로 구성된 어뮤즈댄스팀이 차지했다. 그룹사운드 부문 대상은 전주 해상

댄스-어뮤즈댄스

그룹사운드-해성고
시나브로팀 대상 수상

고등학교 '시나브로'팀이 수상했다. 김승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경연에 참여한 청소년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자연에서 찾은 인문학’

임실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임실문화원(원장 김태진)이 오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문화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대학은 ‘자연으로 가는 길, 자연에서 찾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문학 강좌 총 14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좌 내용은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비롯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풀이 갈 예정으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대학은 요즘같이 극심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시기에 자연의 소중한 함의와 경각심을 일깨워 생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태진 문화원장은 “많은 군민들이 이번 문화대학에 참여하여 인문적 소양을 쌓고 우리 주변의 자연과 환경,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2021년도 임실문화대학

‘자연으로 가는 길, 자연에서 찾은 인문학’

일정	강좌	주최	강사	비고
7월 21일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문화원	배명기	필수강좌
7월 28일	홍수지옥과 우리시대	문화원	최은영	선택강좌
8월 4일	임실의 논과사물과 임실의 자연	임실군	김대영	선택강좌
8월 11일	문명사회의 시작과 문화유산	문화원	김대영	선택강좌
8월 18일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원	김대영	선택강좌
8월 25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	문화원	김대영	선택강좌
9월 1일	임실에서 찾은 시인의 발자취	백남준	시인	선택강좌
9월 8일	생명의 숲에서 찾은 시인의 발자취	백남준	시인	선택강좌
9월 15일	세계 대전 전후의 삶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9월 22일	문명으로 가는 길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9월 29일	우리의 문화유산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10월 6일	생명의 숲에서 찾은 시인의 발자취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10월 13일	생명의 숲에서 찾은 시인의 발자취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10월 20일	생명의 숲에서 찾은 시인의 발자취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10월 27일	생명의 숲에서 찾은 시인의 발자취	김대영	시인	선택강좌

기간: 2021년 7월 21일 - 10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임실문화원(경전선 임실역) | 문의: 063942-2211
신청: 임실문화원 홈페이지 | 후원: 임실군

부안군, 댄스뮤지컬 ‘판타스틱 뮤지엄’ 28일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댄스뮤지컬 ‘판타스틱 뮤지엄’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가 창작 제작한 작품이다. 공연은 살아있는 박물관을 소재로 박물관 속 다양한 작품들과 회사원 박씨가 만나 자신만의 진정한 이상향을 찾아 떠난다는 내용이다.



의 진정한 이상향을 찾아 떠난다는 내용이다.

움직이는 동상 7080 복고 타임, 작곡가 미이라와 판타지의 다양함이 어우러져 색다른 문화예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성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군민들을 위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공연을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예술회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장 입장 시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좌석 띄어 앉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진호=김석진 기자



‘그것이 뭐시당가?’ 고창문화재단 인성나눔교실 멘토 공개 모집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2021 인성나눔교실의 인성 멘토링 ‘인성 그것이 뭐시당가?’와 함께할 멘토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2021 인성나눔교실 사업’인 인성 멘토링 ‘인성 그것이 뭐시당가?’는 인생 중반에 들어선 멘토가 자기 탐색을 시작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통해 갈등과 고민을 풀고, 멘티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인성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올해 2년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은 심사 과정을 거쳐 8월초에 10명의 멘토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멘토 자격은 만 50세(1971년생) 이상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제2의 삶을 모색하고 있는 중년(50+)과 노년 세대다. 멘티와 함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싶은 열정과 봉사 정신이 있는 멘토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10명의 멘토는 ▲역량 강화 워크숍과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을 기획한 후 멘토-멘티 매칭을 거쳐 약 100회 이상의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멘토링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역의 대표 인문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관광산업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

전주대 문화관광대학-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협약 체결
교육실습·교류·교원 공동연구·수업 운영 전문화 협력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이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인재 육성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19일 전주대학교에서 인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기 교육장, 심영국 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교수·학습·교육실습과 교육봉사 지원 및 교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 수업 운영의 현장성 및 전문화를 위한 상호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전주대학교는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산업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인제교육지원청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영국 학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이끌고 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은 실무중심형 교육과정으로 세계 유수의 호텔, 여행사, 식품 및 외식 등에서의 인턴십 단기연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판소리 기원과 서동(서동요)과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실험적 무대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에 따르면 23일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서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2021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을 개막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뮤지컬 ‘홍도580’를 잇는 4번째 레퍼토리며, 올해 새롭게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재단은 2020년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문가 의견(작품개발 소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북도의회 등)을 8회 수렴해 작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기존 작품의 경우 소재(홍도)가 다소 무겁고 관광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수도권 사업 뮤지컬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 콘텐츠로써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판소리와 지역 실험(서동요)’를 융합해 차별화된 작품 제작을 추진했다.

또한 연출과 젊음이 아우러진 제작진을 구성해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음악과 안무에서 기존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실험적 작품을 진행했다. ‘몽연-서동의 꽃’은 판소리, 무용, 현대음악, 디지털 무대기술 등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며, 6세기 삼국시대 백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설화를 기반으로 백제 부흥의 꿈과 사랑 그리고 동서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야기는 백제 중흥을 꿈꾸던 성왕의 관산성

전부와 죽음, 서동의 탄생과 성장 선화공주와의 첫 만남, 선화공주의 사랑을 얻기 위한 서동의 계획(서동요), 선화와 서동의 사랑 등 시군 여행자의 시선으로 마치 꿈속의 이야기를 직접 보는 듯이 실감한다.

제작은 연출 및 안무가인 최석열을 주축으로 지기학(창본/작화), 김태근(음악감독/작곡), 임일진(무대디자인), 김장연(영상디자인), 최희정(의상디자인), 노상민(조명디자인), 김종환(소풍디자인), 박효정(분장디자인), 김진희(조안무), 이정훈(무대감독/조연출), 김대일(소리조연출), 주민아(처음무지도) 등이 참여했다.

또한 공개오디션을 통해 주연, 도창(소리), 앙상블 등 총 22명의 출연 배우를 선발해 연습과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공연은 7월 23일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회(수·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토요일 오후 3시) 진행하며, 지난 9일 ‘티켓링크’와 ‘네이버 티켓’에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티켓가격은 전석 1만5,000원이며, 도민은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코로나19 등 질병 확산이 종식되기 전까지 객석 거리 두기에 따른 75석(기준 220석)을 유지할 계획이며 ▲공연장 소독 및 환기, ▲공연장 입장 시 관람객 증상 여부 확인,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인접면 온라인 사전예매 권장 등 철저하게 방역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익산 서동의 지역 이야기를 통해 관광 상품으로서 가능성과 차별화된 공연콘텐츠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